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금 20일 지급

정읍시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일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농업인 4,692명이며, 총지급액은 6억4,100만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휘발유, 경유, 등유를 비롯해 중유, LPG, 부생연료유 등 농업용 면세유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용된 면세유 물량의 50%에 해당하며, 농가당 최대 1만 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종별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중유 78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차량용 LPG는 38원 △난방용 LPG는 68원 △부생연료유 1호와 2호는 각각 95원과 96원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부안군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15일 변산면 내 추월팔 농장에서 지역 농업인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 체험관광연구회 캠퍼스'와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번 캠퍼스의 주제는 '우리들의 캠퍼스'로 체험농장 운영자들(대표 채명심)이 2025년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를 계획하며, 농업·문화·여가가 결합된 새로운 농촌형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체험농장의 새로운 트렌드인 치유농장의 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주기전대학 RISE 사업단과 협력하여 기획하였다.

캠퍼스에서는 상향버섯, 오디 뽕가공품, 녹차, 파간 등의 지역농산·가공품과 한지 공예품을 전시하였고, 올해 2회에 걸쳐 추진한 나눔행사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다도 체험 프로그램과 보리뽕만들기 체험도 추진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황윤석도서관 12월 3일 개관

고창군, 월곡뉴타운지구 내 지하1층~지상2층 규모... 동아리실 등 다양한 공간 마련

고창군 대표도서관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고창황윤석도서관'이 오는 12월3일 개관한다.

개관식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의 설계자인 유현준 교수 초청 강연과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고창읍 월곡뉴타운지구 내에 연면적 3815㎡,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이재 황윤석 전시공간, 동아리실, 이용자쉼터 등 도서관을 찾는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일반자료실은 폭넓은 주제의 도서와 도서관 이용을 돕는 AI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ICT 장비를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자료실은 낮은 서가와 다양한 종류의 유·아동 자료를 구비했고, 디지털플 레이그라운드와 책읽어주는 로봇을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도한다.

이재 황윤석 전시공간은 고창의 대표적 인물인 조선시대 실학자 이재 황윤석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고창의 서재', '기록의 서재'로 구성된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 고창 지역과 기록에 관한 자료들도 만나볼 수 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종묘'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고창황윤석도서관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챙긴다

정읍시,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32개 단지 실태 조사

정읍시가 지역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 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32개 단지를 대상으로 근무 환경과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관리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수집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조사 항목은 근무 환경, 업무 만족도를 비롯해 인권 침해 경험 여부, 복지·휴게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시는 이번 설

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향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방침이며, 차기 실태조사의 비교 자료로도 쓸 계획이다.

특히 시는 조사 결과를 단순히 통계로만 남기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조사 완료 후 도출된 결과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관리종사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의 최전선에서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위한 특성조사 착수

정읍시가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기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정확한 파세 및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해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주택 등 2만 5132호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 정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담당자와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토지와 건물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토지의 형상과 방위, 도로와의 접면 상태, 건물의 구조, 지붕 형태, 실제 용도 등 주택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다.

시는 조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시청 단풍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특성조사 요령과 전산 입력 방법, 현장조사 장비 활용법 등을 공유하며 조사 준비를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히 주택의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지방세 부과와 기준이 된다. 또한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선정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74년만에 故 이만석 대위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부안군, 6·25전쟁 참전 뛰어난 전공 세워 서훈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8일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故(故) 이만석 대위의 자녀 이해홍(71)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만석 대위는 6·25전쟁 당시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참전에 뛰어난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

다.

고인은 1962년 제대 후 초대 백산면 예비군 중대장 등을 역임했으나 2007년 작고 시까지 실제 훈장 전수는 이뤄지지 못하고 명예로운 기록만이 남아있었다.

부친의 훈장을 수련한 유족 이해홍 씨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면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아버지의 훈장을 찾게 돼 감사하교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칼 앞에 몸을 던진 참전용사 및 유족의 헌신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부안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5 K-Farm 박람회' 서 귀농귀촌 분야 대상 수상

정읍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세에서 열린 '2025년 케이팜(K-Farm)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정책의 우수성과 체계적인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2025 케이팜 박람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대거 참여해 최신 농업 트렌드와 귀농·귀



촌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시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지자체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박람회 기간 △정읍형 귀농·귀촌 지원정책 소개 △도시민 대상 1:1 맞춤형 상담 △정읍 농특산물과 생활환경 홍보 △지자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현장 밀착형 멘토멘티 지원 시스템'과 '정읍에서 살아보기' 정보 안내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5년 고창농촌개발대학 수료식

전문농업인 121명 양성

고창군이 지난 17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고창농촌개발대학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농촌개발대학은 정규과정(농업리더와 수박·멜론과, 복분자파, 시스마트농업과) 특별과정(음료배리어이션과) 등 5개 과정을 운영했다. 3~10월 약 8개월 동안 총 20회 내외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며 진행됐다.

지역 농업인들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경영 능력과 기술 역량을 높였다. 총 121명의 정규과정 교육생이 수료증을 수여받았으며, 개근상 22명, 공로상 5명, 우수교육생상 5명에게 각각 상장이 수여됐다.



특히, 농촌진흥청장상은 고정호 총학 생활자에게, 군수상은 박병열 농업리더과대표, 김희정 수박·멜론과대표, 구효숙 복분자파대표, 이흥재 시스마트농업과대표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창농촌개발대학은 지난 2005년 개설 이후 21년 동안 2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역 농업발전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